

KB-YMCA Aaonatti 5th thailand

4월 정기보고서

김태훈, 김지연, 이하나, 이정표, 이혜영

2011. 4.1 ~ 4.22

Chiang-mai YMCA, Samkampang YMCA in Thailand



목 차

1. 4월 일정소개

2. 유기농 마을 (4/4 ~ 4/9)

3. 송크란 (4/11 ~ 4/15)

4. 인타논 산 (4/18 ~ 4/22)

5. 느낌점

1. 4월 일정소개

April 2011

1. Home stay
2. Song Kran Festival
3. Doi Inthanon

April 1 ~ 3

Day-off

April 4 ~ 9

Stay with the homestay learn about organic farming

April 11 ~ 15

Song Kran Festival

April 18 ~ 22

Inthanon High land development, Karen village Activity

2. 유기농 마을 (4/4 ~ 4/9)



4월 첫째 주, 우리는 프라우에 위치한 유기농 농장마을에서 홈스테이를 했습니다. 마을에서 실행하고 있는 유기농 농업 사업을 보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마을사람들의 일을 돕고, 전통방식으로 음식을 구해먹으며 그들의 일상을 체험하는 등 일손을 돕고 그들의 문화를 체험하면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아침에는 태국의 스님들께 공양드리는 '탐분'이라는 의식도 체험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그동안 우리가 마을사람들을 도우며 수확한 작물을 치앙마이에서 열리는 유기농시장에 가서 직접 판매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수요일과 토요일마다 열리는 유기농시장이었는데, 직접 농작물을 진열하고 시민들과 흥정을 하는 새로운 경험을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태국의 농촌생활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마을의 문화를 이해하고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숙소문제였습니다. 우리는 두 개 방을 배정받았고 그중 한방의 환경은 매우 열악했습니다. 개미와 바퀴벌레 등 각종 벌레들이 난무했습니다. 더 힘들었던 점은 우리가 방에 들어간 후 대문을 자물쇠로 잠가서 폐쇄되었다는 느낌을 넘어서 감금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 마을 여성들은 더 보호받아야 한다는 인식 때문인지 여성 단원들은 밤늦게 돌아다니면 안되었고,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오래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있고 싶어도 9시 30분쯤이 되면, 조금은 강제적으로 여자들은 숙소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에 어려움을 느껴 담당 스템인 피요에게 건의했지만, 그는 언제나 이 마을을 무조건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들은 피요와 갈등을 겪고, 서로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태국, 그것도 한 시골마을의 삶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20여년을 도시에서 살아온 우리들이었기에, 단 며칠 만에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날수록 점점 그들의 삶의 속도에 맞추고 그들의 생각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는 없어도, 조금씩 이해하는 우리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소 불편한 환경에서도 지낼 수 있었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 일을 돕는 것이 낯설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익숙해 지는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날씨가 너무 더워 게으름을 피우는 일이 많았습니다. 중간에 힘든 일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 노력을 했기에 마지막 날, 마을 어머님 아버님들 그리고 아이들과 이별할 때는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 있었습니다.

이번 마을체험은 앞으로 5월에 시작 될 두 달간의 마을에서의 활동을 위한 준비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번 일주일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두 달간 머물게 될 마을에서도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 송크란 (4/11 ~ 4/15)

태국에도 우리나라와 같이 설날이 있습니다. 이를 '송크란' 이라 부르고 이 기간동안 물의 축제 '송크란 축제' 가 열립니다. 이때 우리는 약 1주일간의 휴무일을 가졌습니다. 정확한 송크란 축제 기간은 4/13 ~ 4/15 이지만, 우리가 머물고 있는 썸캄핑은 조금 일찍 축제를 시작했습니다. 축제 첫날 우리는 산캄핑 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축제를 즐겼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상대방이 누구든 가리지 않고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에게 물을 끼얹고, 길을 걷는 사람도 대부분 물총을 가지고 다니면 서로를 향해 물을 뿌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누구하나 화내거나 인상 찌푸리는 일 없이 모두 'Happy new year' 을 외치며 즐거워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다른 태국의 축제문화와 사람들 마음을 보며, 태국의 새로운 모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람퐁에 사는 덤당자 피페의 친언니인 빠댕의 집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JKY' 친구들과 송크란을 즐겼습니다. 비가 오는 날씨였기에 그 전날만큼은 아니었지만, 즐겁게 축제를 즐겼습니다.

이 기간에 맞춰 반가운 손님이 두 명 찾아왔습니다. 라온아띠 3기 태국팀 남미영 선배와 팀원 김태훈의 친구가 우리가 머물고 있는 산캄핑 YMCA를 방문했습니다. 우리는 남은 축제기간동안 각각 휴식 또는 여행을 하며 태국에 온 뒤, 오랜만에 여유로운 개인시간을 가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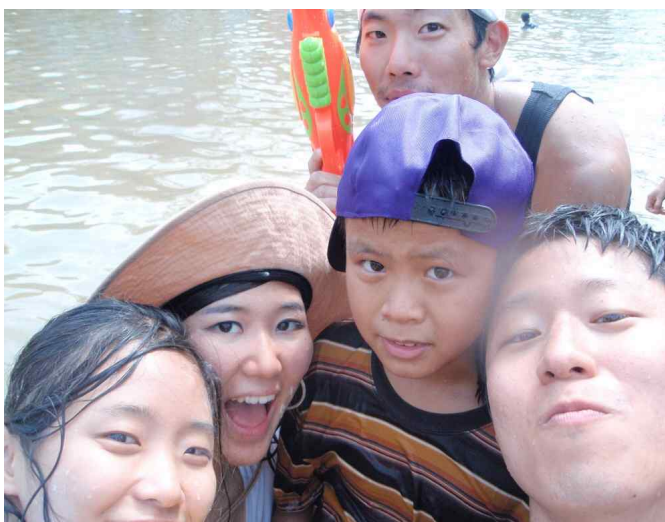


그러던 중 15일, 우리는 태국친구 바스의 초대를 받아 그의 집에 놀러갔습니다. 그곳의 이웃주민들과 바스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태국사람들이 설날을 어떻게 지내는지 직접 몸으로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식사 후 우리는 모두 바람을 쐬러 근처 강가로 갔습니다. 그 곳에서 피요와 곁등이 있었습니다. 곁등의 발단은 피요의 과격한 언어선택에서 비롯되었지만, 그가 우리에게 한 말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왜 왔나', '우리가 진짜 마을을 이해했는가', '우리가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온아띠로서 무엇을 얻고 싶은가' 등 그가 던진 질문들을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송크란 축제를 보내면서, 이런 문화가 있다는 것이 부러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우리만의 축제가 아닌 전세계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축제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심히 웃고 소리치며 축제를 즐기고, 때론 진지하게, 때론 여유롭게 휴식을 취하며 정신없이 1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여파로 송크란기간이 끝나갈 때

썸 팀원들이 하나 둘씩 아프기도 했습니다. 지현은 설사병이 나고, 태훈은 속이 메스꺼리는 등 조금씩 병치레를 했습니다. 아마도 이 둘이 가장 열심히 송크란축제를 즐겼던 것 같습니다.



4. 인타논 산 (4/18 ~ 4/22)



태국에서 제일 높은 산인 인타논으로 가기 전, 우리는 각자 인타논에 대해 조사하고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인타논 로얄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떠나기 전, 과거에는 아편과 같은 마약을 재배했었고,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직접 개입하고 있다는 것만을 알고 떠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로얄프로젝트를 직접 체험하거나 일손을 돕는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도착해서는 별장 같은 곳에 숙소를 잡고 주변 산책을 하고 끼니때 마다 직접 밥을 지어 먹고, 휴식을 취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산속이라 날씨까지 시원해 우리는 캠핑을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며 오랜만에 자연속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다음 날은 로얄프로젝트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종류의 작물들이 재배되는지를 듣고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재배지가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어서 센터에서는 재배되는 정면을 직접 보지 못하고 가꿔진 공원을 보는데 일정을 마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카렌 마을로 향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상당부분 전통의 모습을 간직한 마을이었습니다. 마을의 이장님과 함께 마을에서 재배하는 농장과 마을 곳곳을 가보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보내온 의류를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나누어 주다 친해진 마을의 아낙들과 함께 학교와 허브농장, 개인집 등을 둘러보았습니다. 우리는 마을의 청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설명을 받으며 마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일정은 우리들로 하여금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카렌 마을에서의 가장 큰 일은 직접 밥을 하고, 치우고, 다음 메뉴를 생각하고, 다시 밥을 짓고, 치우는 일이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이곳에서 우리가 직접 끼니를 해결했던 것은 즐거운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동시에 YMCA에서 밥을 준비해 주는 스템들에

게 다시 한 번 고마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팀원들 서로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느끼며 지금까지 스스로의 행동을 반성해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활동에 대해서도 되돌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곳에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경험하고 싶은 것들만 얻으려 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카렌마을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재현되고, 그 외 다른 고산부족과 같은 소수민족 삶의 방식이 관광객들에게 어떻게 비춰졌는지... 우리가 며칠 그곳에서 지냈다고 과연 얼마나 '그들의 삶을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 이곳에서 무엇을 행했어야 했나' 등에 대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5. 느낀점



김지현 - 폰.

시간은 역시나 빨리 흘러간다. 어느새 4월도 다 지나고 새로운 달이 시작되려고 한다. 라온아띠로 2개월을 지내며,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일이 많아졌다. 활동초반에는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다가 문득, '난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때부터 시작됐던 것 같다. '난, 이곳에 왜 왔지?', '어떤 마음으로 왔었나?'하는 질문들이 쏟아졌던 것이.

많은 활동을 했고, 많은 것을 경험했지만 그럴수록 그 모든 것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선불리 이해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다. 결국 내가 보고싶은대로만 보고, 받아들이고 싶은대로만 받아들여놓고선 이해했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닐지. 오가닉 농장 홈스테이에서, 카렌마을에서, 심지어는 즐겁게 송크란을 즐길 때마저도 난 무엇을 보았고, 그것들을 어떻게 이해했었던가. 아마도 이렇게 헤매는 것은 답을 찾기 위함이 아닌, 새롭게 질문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인 것 같다.

결국, 이곳도 사람 사는 공간임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좋게만 보이던 환상이 깨졌다. 이곳 역시 엄연한 현실이라는 것이다. 살 부대끼며 사는 팀원들도, 이곳의 사람들도 모두 지지고 북으며 그렇게 살아간다. 때문에 마냥 싫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마냥 행복에 겨운 것도 아니다. 다만, 잘 어울려 살아'내야'겠다는 생각이다. 결국, 사람 사이의 관계도 노력없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김태훈 - 맥

한국에는 아직까지 추위가 한창이던 3월 초, 태국에서 막바지 겨울을 뜨겁게 보내기 위해, 옷장 깊숙이 넣어둔 여름옷을 꺼내서 짐을 싸기 시작했다. 푸켓섬과 피피섬밖에 모르던 태국. 그곳에서 5개월 동안의 생활을 상상하며 조금의 걱정과 설렘을 안고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반나절 정도 걸려 그 곳에 도착했을 때 긴장했던 타인가 마셨던 공기는 시원했고 나를 멍하게 만드는 것 같았다. 태국 치앙마이의 첫 날은 긴장과 설렘 속에서 잠이 들었다. 그렇게 5개월간의 대장정이 시작되었다.

처음으로 앞으로 우리가 하게 될 활동과 머물게 될 YMCA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졌다. 이때 우리는 각각 태국어 이름을 짓게 되었고, 나는 구름이라는 의미를 가진 '맥'이란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앞으로 5개월 동안 나는 김태훈이 아닌 맥으로 살아갈 것이다. 다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초반 생활목표는 적응이었다. 영하권의 날씨에서 불과 몇 시간만에 30도가 넘는 곳에서의 생활은 힘들었다. 더위와 밀려오는 졸음을 참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 날씨에 적응해 갈 때쯤 태국의 문화에도 조금씩 적응하고 있었다. 그들의 예절에 맞게 행동하려 노력했고, 주변 사원들을 둘러보며 그들의 생활모습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YMCA 관계자들, 마을 사람들 모두가 우리를 관광객이 아닌 친구로 생각해 주어서 더욱 빨리 적응할 수 있었다.

우리는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했다. 태국어 수업, 주변 공공기관들 방문, 유명 관광지 탐방, 송크란 축제, YMCA 주말활동, 대외 활동, 1주일간의 홈스테이 등을 하면서 2개월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다. 2달동안 모든 것이 완벽하고 좋은것만은 아니었다. 때론 팀원들끼리의 갈등도 있었고, 스텝들과의 갈등도 있었다. 음식과 생활방식 적응에 힘이든 적도 있었다.

새는 알에서 깨어나오려고 알이라는 자신만의 세계를 파괴한다고 한다. 나에게 있어 2달간의 일들은 조금은 고지식하고 고정되어 있던 내 자신의 의식의 틀을 깨고 보다 자유롭고 능동적인 시선으로 세계를 바라 볼 수 있게 해준 매우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이정표 - 맥

처음에 라온아띠라는 해외자원 활동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다. 그 중 가장 큰 이유는 인생에 있어 일종의 전환점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중학교부터 입시를 거쳐 대학생활까지 나에게겐 굉장히 지루한 시간이었다. 거의 모든 생활은 수동적이고 주변의 요구에 따라다녀야만 했다. 중, 고등학교와 입시를 하는 동안은 대학에 가면 뭔가 다를 것이라 기대를 했었다. 그러나 기대했던 대학에서 마저 그런 시간이 계속되었다. 나에게겐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했다. 주위사람들은 군대에 다녀오고 변화의 시간을 가졌다고 많이 얘기를 해주었다. 그러나 군대에 가지 않는 나에게겐 군대 이외에 지난 지루했던 시간들을 멈추고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볼 전환점과 같은 시간이 필요했다. 라

온아씨는 그런 나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 같았다.

두 달이 지난 지금 귀국 후 무엇을 하고 싶고 이루어 나갈지에 대한 생각이 구체화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다른 고민이 생겼다. 라온아씨로 활동함에 있어 태국은 나의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 외의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가 고민하고 공유할 수 있는 무언가를 요구했다. 지금 생각하면 당연한 요구이고 예견할 수 있는 요구였다. 파견 전 태국은 일방적인 봉사활동을 하는 국가가 아니라 서로 배우고 얻는 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들었다. 자원 활동에서 얻는 개인적 배움이 아니라 배움을 공유하고 의논해보는 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들었다. 두 달간 개인적인 목적에 집중했던 나에게 즉시 답하기 힘든 요구였다. 지난 두 달간의 활동을 돌아봤을 때 주변과 얘기하고 함께한 시간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 물론 태국어는 물론이거니와 영어에도 자신이 없기에 주변과 대화하기를 꺼려왔던 것도 있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주변과 대화하는데 익숙해져 가는 참이니 주변과의 소통이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싶다. 주변과의 소통이 라온아씨의 목적성에도 부합하고 개인적인 목적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다가올 두 달간의 홈스테이 기간은 더욱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줄 것이라 생각한다.

다음 에세이를 쓸 즈음에는 아마도 위에 언급한 내용들에 대해 좀 더 구체화된 생각들을 적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갔을 때 그런 생각들을 주변과 나누고 변화된 나의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하나 - 다우

어느덧 태국에서 보내고 있는 4월 달.

두 달 남짓 보내며 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법을 배우고 있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마을 사람들과 마을과 교류하고 소통하며 지내고 있는지 생각한다. 내가 생각하는 지속적인 사회를 추구하기 위해 나는 얼마나 마을을 느끼고 이곳에 정착하고 있는가. 내가 속한 이 마을에 나는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나의 진심으로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대해 생각한다. 인간의 가장 큰 두 축은 연대와 다양성이라고 나는 굳게 믿고 있다. 그런데 나는 얼마나 이 큰 두 축을 지향하며 나의 삶에 투영시키고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든다. 그러나 나는 시도한다. 정말 나의 진심으로,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

이곳의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행복하냐고 묻는다. 나는 언제 다른 사람에게 행복한지 물어보았을까. 그 동안 나는 나 자신의 기쁨에만 머물러 있던 것 같다. 그러나 이제 나는 다른 이들의 기쁨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행복해지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태국에서 느끼고 있는 한가지는 소박하고 단순해지자는 것이다. 나는 항상

복잡하게 생각하고 느꼈다. 그리고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길이 가까운 곳에 있음에도 항상 먼 곳을 바라보며 길을 찾았다.

그래서 나는 나 자신으로부터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나는 배우고 있다. 기름진 생존을 목적으로 모든 것을 소유의 대상으로 취급하며 나의 존재 자체를 잊어버리지 않았을까. 끊임없는 소유를 지향하고 욕망하는 나의 모습에 나는 부끄러움을 느낀다. 그리고 나의 주머니에 들어있는 돈 몇 푼을 바라보며 나는 이것을 어디서 어떻게 얻었는지 나에게 묻는다.

특히 4월에 많았던 자연과 마을 속에서의 활동들. 나는 항상 자연을 그리워한다. 회색의 도시에서 나는 20년을 지냈다. 그래서 인지 항상 자연을 동경한다. 그러나 동시에 불편해한다. 많은 공기, 푸르른 녹음, 깨끗한 물소리는 좋아하면서 자연의 거대함, 죽음의 생존은 두려워한다. 난 이렇게 자연의 일부분만을 동경하며 추구했다. 불편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의 삶에는 이러한 그림자를 철저히 막아내려 했다. 그러나 자연의 모든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일부분만 받아들이는 자세는 나의 삶까지도 막아버리는 일이라고 느껴진다. 모든 면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나는 나의 살아있는 삶을 위해 용기를 내본다.

그리고 여러 활동을 하며 내가 행하는 일에는 늘 그림자가 따르기 마련이라는 생각이 든다.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은 늘 발생하기 마련이다. 노력만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내가 손쓸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다. 다만 나의 노력이 나의 후회를 조금 덜어주는 것일 것이다.

한번밖에 오지 않는 삶의 기회를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있는지 나는 이곳에서 깨닫고 있다. 그리고 현재를 위해 나는 나아가고 있다. 어떻게 나아가고 무엇을 기억하는지는 전적으로 나에게 달린 일이라는 신념으로.

그리고 나는 태국에서의 이 삶이 나 한 개인의 인생 경험이 아닌, 내가 만나고 같이 활동하고 함께 즐겁던 수십 명의 경험으로 추억되고자 한다.



이혜영 - 룡

태국에서의 생활이 벌써 2개월이 훌쩍 지나 벌써 중간 보고서를 작성하느라 분주한 우리를 발견할 때마다 새삼 깜짝 놀랍니다. 2개월 전 모든 YMCA 스태프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설렘과 긴장감을 안고 태국이라는 낯선 땅에 발을 들였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공기를 마시며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잠을 자고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동안 어느새 그 곳은 제 집이 되었고, 그 사람들은 제 가족이 되었습니다.

도착해서 가장 먼저 태국어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YMCA 스태프분들에게 기초적인 태국어를 배우고, 직접 대화를 통해 연습했습니다. 부족한 실력이었지만, 조금이라도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징검다리라 생각하니 즐겁게 그리고 행복하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3월에 했던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일본 쓰나미 피해 복구 모금운동이었습니다. 그 당시 갑작스러운 쓰나미로 인해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상처받은 일본을 위해 계획에 없던 캠페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토요일 날 열리는 walking street을 무대로 삼아 사람들의 이목을 끌 다양한 포스터와 춤,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일본 쓰나미 피해의 심각성을 깨닫고 아픔을 함께 공유하며,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정성스럽게 모금행사를 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심지어 몸이 불편하신 분들까지 자발적으로 모금하는 모습을 보며 아직 세상은 아름답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지역 어르신분들을 방문했습니다. 여기 산캄펑 지역에 거주하며 빈곤 혹은 장애로 조금은 불편하게 사시는 분들을 방문해서 말동무가 되어드렸습니다. 이 활동이 끝난 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힘들게 살아가시는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드리지 못하고 일회성 활동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무거웠던 마음도 시간이 점점 지날 수록 무뎌져 가는 제 모습을 보며 스스로를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파견 전 태국을 조사할 때 송크란 축제에 대해 접하게 되었습니다. 송크란은 태국의 설날이며 이때 물의 축제라고도 불리는 송크란축제가 열립니다. 때문에 송크란축제를 즐기기위해 많은 외국 관광객들 또한 이 기간동안 태국을 방문합니다.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서로에게 물을 끼얹으며 새해 복을 빌어주고, 외국인들과도 함께 웃고 즐기는 모습을 보며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문화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과 함께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산캄펑, 람퐁, 치앙마이에서 매일 송크란 축제를 즐겼습니다. 축제를 즐기고 나면 항상 급격한 피곤함을 느끼긴 했지만, 다시 길거리로 나가서 열정적인 축제의 모습을보면 피곤함을 잊고 기쁘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유기농마을에서의 홈스테이, 주말 YMCA 특별활동, 데이캠프, 태국 유적지 답사 등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지난 2개월 동안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경험을 했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앞으로 남은 태국생활을 더욱 잘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 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다음 보고서를 쓸 땐 지금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